

4. 발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의 화폐수요에 맞춰 은행권과 주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을 기념하는 10종의 주화를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조지폐 유통방지 홍보,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선정·포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손상된 화폐를 꾸준히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이 밖에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주요국 중앙은행 등 관계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하여 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가. 화폐 발행

화폐수요에 대응

2019년 중 한국은행은 35조 9,013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25조 5,919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18년 말보다 8.9% 증가한 125조 6,989억 원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오만원권이 2018년 말 대비 11.3%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만원권은 2.7% 감소하면서 오만원권이 중심 권종으로 정착되어 가는 양상이 이어졌다.

표 III - 9. 화폐발행·환수 및 발행잔액¹⁾

(억 원)

	2019			2019년 말 발행 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 ²⁾	358,584	255,601	102,982	1,231,817 (9.1)
오만원권	267,373	160,696	106,676	1,053,944 (11.3)
만 원 권	84,295	88,420	-4,125	147,347 (-2.7)
오천원권	3,309	3,086	223	14,160 (1.6)
천원권	3,607	3,399	208	16,185 (1.3)
주 화 ²⁾	430	318	112	25,171 (0.4)
합 계	359,013	255,919	103,094	1,256,989 (8.9)

주: 1) () 내는 2018년 말 대비 증감률(%)

2) 오백원권 이하 은행권, 오원화 이하 주화, 기념화폐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7억 2,031만 장으로 2018년 말에 비해 9.5% 감소하였다. 은행권은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32.3% 감소한 반면, 주화는 십원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91.7% 증가하였다. 이들 제조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 9,712억 원으로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58.9%)하였다.

표 III - 10. 화폐 제조규모¹⁾

	장 수(100만 장)		금 액(억 원)	
	2018	2019	2018	2019
은행권 ²⁾	650.0	440.0	145,000	59,600
	(7.4)	(-32.3)	(25.7)	(-58.9)
주 화 ²⁾	146.2	280.3	338	112
	(-70.8)	(91.7)	(-59.8)	(-66.9)
합 계	796.2	720.3	145,338	59,712
	(-28.0)	(-9.5)	(25.1)	(-58.9)

주: 1)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기념화폐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기념주화 10종 발행

2019년 중 한국은행은 총 6회에 걸쳐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우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 5종을 세 차례(1월 2일, 4월 11일 및 9월 26일)에 걸쳐 발행하였다. 또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기념주화를 7월 3일 및 9월 26일에 각각 발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의 미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시리즈 기념주화로서 「한국의 국립공원」 3종(‘속리산’, ‘내장산’, ‘경주’)을 11월 14일에 발행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2개 전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이다.

그림 III- 13. 2019년 발행 기념주화

화종	도안	소재·규격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앞면) (뒷면)	·은 99.9% ·지름 40mm ·무게 31.1g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산업화)		·은 99.9% ·지름 32mm ·무게 14.0g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민주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한반도)		
2019광주 FINA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한국의 국립공원 (속리산)		·은 99.9% ·지름 32mm ·무게 14.0g

자료: 한국은행

나. 화폐 유통

위조지폐 유통방지 등 홍보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버스정류장 쉼터, 영화관 스크린, 리플렛, SNS 미디어, 카드뉴스,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화폐사랑 UCC 동영상 공모전」(6회차)을 개최하여 역대 최다인 154편의 응모작 가운데 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밖에 화폐위조범 검거 등에 크게 공헌한 10개 경찰서와 국민 2명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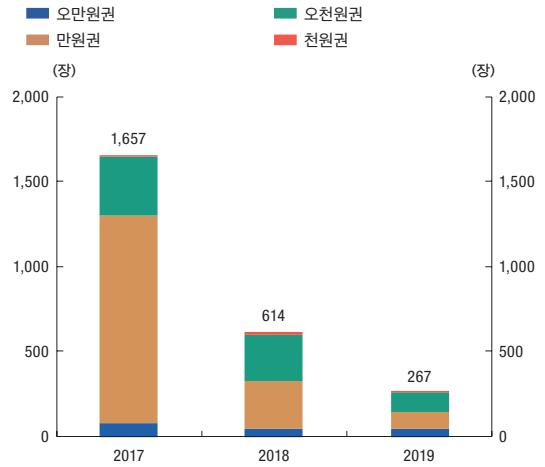
2019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2018년(614장)보다 347장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CCTV 등 방범시설의 현대화,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친숙도 제고 등으로 위폐의 제작·유통이 극히 제약된 데 기인한다.

그림 III- 14.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19년 11월 6일)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15. 위조지폐 발견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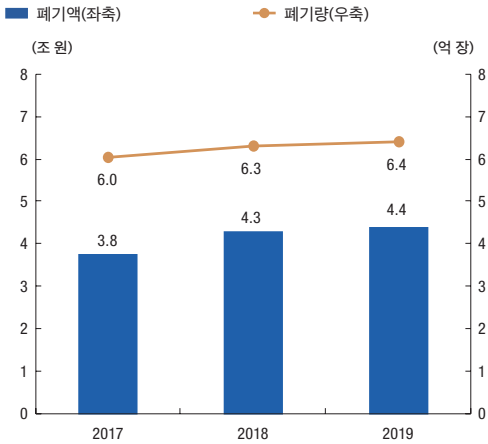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통화폐 청결도 개선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환수한 화폐 중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하여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 2019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4조 3,540억 원으로 장수 기준으로 6억 4,040만 장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4조 3,516억 원(6억 1,449만 장), 주화가 23억 6,860만 원(2,592만 개)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73억 9,745만 원으로 2018년(56억 3,374만 원) 대비 17억 6,371만 원 증가하였다.³⁷⁾ 아울러 2018년에 이어 PC와 모바일,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동영상 광고물인 「돈 깨끗이 쓰기」를 홍보하였으며, 신권선호 완화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였다.

37) 은행권 유통수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1>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 16. 화폐 폐기규모



자료: 한국은행

주화의 유통 원활화

한국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2만여 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2억 2,129만 개(322억 원)의 주화를 은행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는 2019년 주화 발행량의 62.2%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복지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동전모금사업을 위한 소형 저금통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주화 유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국내외 협력

한국은행은 관세청,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였다. 2019년에는 서울시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조지폐 식별 요령 및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하였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검찰로부터 인수하여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한편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화폐 박람회(World Money Fair)」, 「화폐 콘퍼런스(Currency Conference)」 등에 참석하여 외국 중앙은행 및 조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기념주화 제조 동향, 최신 은행권 위조 방지장치 개발 동향, 화폐 및 발권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 등 정보를 공유하였다.

참고 III-1.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일반적으로 제조 은행권(신권)이 한국은행 창구에서 발행된 후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한국은행 창구로 환수될 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의미한다.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일반적으로 용지 재질, 화폐사용습관, 사용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용지의 물리적 강도가 강해질수록, 은행권 사용습관이 개선될수록,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아질수록 유통수명이 길어진다.

그림 III- 17. 은행권 유통수명

신권 납품	신권 발행	손상권 환수	손상권 폐기
신권 보관	유통수명	손상권 보관	

자료: 한국은행

표본조사 방식³⁸⁾으로 권종별 유통수명을 추정한 결과 천원권 53개월, 오천원권 49개월, 만원권 127개월, 오만원권 162개월로 나타났다. 천원권과 오천원권은 거래적 동기³⁹⁾에 의해 빈번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만원권에 비해서는 유통수명이 짧은 반면, 만원권은 거래적 동기에 더해 가치저장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저액면 권종에 비해 유통수명이 긴 편이다. 특히 오만원권은 다른 권종보다 가치저장 수단⁴⁰⁾으로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유통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추정결과를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유통수명이 천원권은 1개월, 오천원권은 6개월, 만원권은 6개월 늘어났다. 이러한 유통수명 증가는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이용 활성화에 따른 현금 사용 감소와 더불어 일반의 화폐사용습관 개선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I - 11. 2018년 및 2019년의 유통수명 추정결과 비교

(조 원, 연%)

구분	2018년(A)	2019년 ¹⁾ (B)	증감(B-A)
천원권	52	53	+1
5천원권	43	49	+6
만원권	121	127	+6
5만원권	-	162	-

주: 1) 5만원권의 유통수명 추정은 2019년 중 처음으로 실시
자료: 한국은행

한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최저액면(천원권) 및 중간액면(만원권)은 길고 최고액면(오만원권)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18. 주요국 은행권의 유통수명 비교¹⁾

(개월)

최저액면		최고액면	
국가(액면가)	유통수명	국가(액면가)	유통수명
미국 (1달러)	70	미국 (100달러)	180
유로존 (5유로)	18	유로존 (500유로)	235
영국 (5파운드)	23	영국 (50파운드)	492
호주 (5달러)	68	호주 (100달러)	330
일본 (천엔)	18	일본 (만엔)	54
멕시코 (20페소)	44	멕시코 (천페소)	103
한국 (천원)	53	한국 (5만원)	162

주: 1) 중간액면의 유통수명(개월): 미국(20달러) 95, 유로존(50유로) 50, 영국(20파운드) 113, 호주(20달러) 134, 일본(5천엔) 18, 멕시코(200페소) 49, 한국(만원) 127

자료: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

38) 은행권 표본을 추출한 후 표본의 유통기간을 추적하여 수명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39)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1만 원 이하 물품 및 서비스 구매 건수의 78.3%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한국은행 발권국의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주로 5만원권을 예비용 현금으로 보유(전체 금액의 79.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